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 1 발견신고
- 2 실외·실내·차량대피
- 3 복귀



발견 | 신고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위치, 색깔, 냄새, 증상 등 현장상황을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

노출되지 않게 하고,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멀리 대피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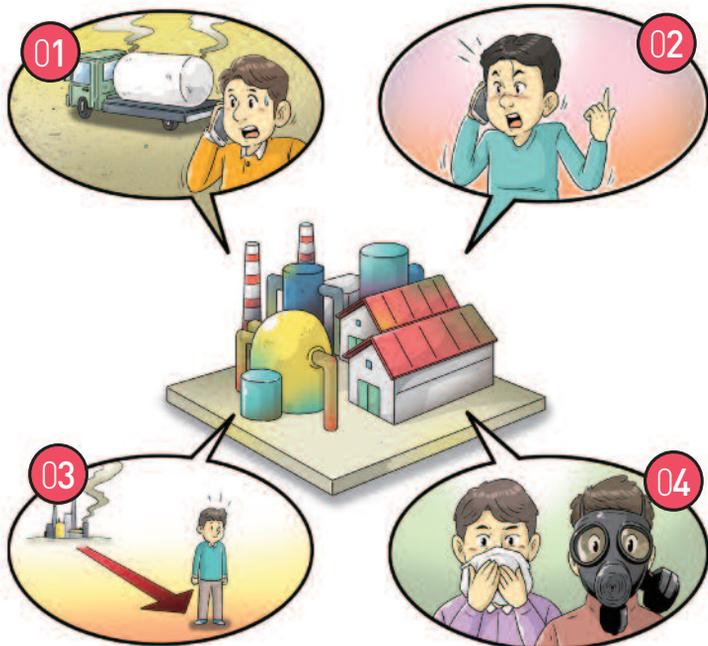
화학사고 발견시 행동요령

01

사업장, 화학물질 운반차량 주변에서 연기 또는 폭발음, 냄새가 나거나 눈, 피부가 따가울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02

신고 시 사고위치, 색깔, 냄새, 증상 등 현장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



03

화학사고 현장을 구경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04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다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발생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직각방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실외대피시 행동요령

01

내 위치를 중심으로
사고발생지역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사고발생지역에서 내 위치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직각방향으로**
대피 합니다.

02



03

대부분의 고독성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이 특성이 있어
가급적 고층건물 또는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불화수소, 암모니아와 같이 위로
퍼지는 특성을 가진 가벼운 물질은
제외
※ 반드시 관할관청 등의
대피방송에 따라 신속히 대피



04

대피소로 대피하려는 안내가 없는 한
실내에 머물면서 스마트 폰, 방송 등을
통해 **외부상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05

외부대피가 필요한 경우 **실내 및 건물의
모든 출입구와 창문을 막고** 음식물의 외부
노출을 피하고 실내에 밀폐하여 보관합니다.
대피시 전기와 가스를 끕니다.

실내대피

가능한 외부와 연결된 모든 출입문을 닫고 창문과 출입문을 젖은수건이나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방송 등을 통해 외부상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실내대피시 행동요령

02

가능한 외부와 연결된 모든 출입문을 닫고, 창문과 출입문을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하여야 합니다.

01

사고 발생 초기에 화학물질 누출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약자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머무르도록 합니다.

03

사고장소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화학물질 폭발에 대비해 창문으로부터 떨어져서 대피해야 합니다.



04

실내에서 스마트폰 방송 등을 통해 외부상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외부대피가 필요한 경우 방송 등을 확인 후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05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 (에어콘, 히터, 환풍기)의 작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 히터 등을 반드시 꺼 외부 공기가 차량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인화성액체 유출시에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멈추고 시동을 꺼야 합니다.

차량대피시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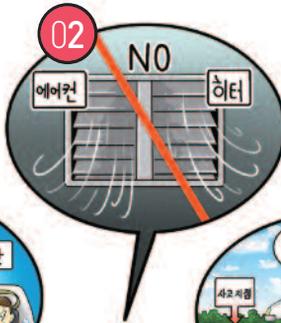
01

차량을 타고 사고지역 주변을 통과할 시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순환은 내부순환으로 바꿔야합니다.



02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때까지 에어컨, 히터의 작동을 중단합니다.



03

유류, 인화성액체 유출사고 시에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멈추고 시동을 꺼야 합니다.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재시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04



04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경찰, 소방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동하도록 합니다.

05



05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으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복 귀

사고지역에서는 식수나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고 오염된 물체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화학물질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비닐봉투에 담아 폐기하고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복귀시 행동요령

01

담당공무원이 주민복귀 방송을 할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하고 복귀후에는 즉시 환기를 하도록 합니다.
(대피시 호흡이 가빠지지 않도록 뛰지 않습니다.)



02

사고지역에서는 노출된 식수나 음식을 절대로 먹지 말고 오염된 물체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03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119에 신고 후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가치료를 시도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04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입고 있던 옷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폐기하고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생활 화학제품 어린이 중독사고

주의하세요!

생활화학제품 중독사고란?

세제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중 신체 일부에 접촉하거나 음료 등으로 오인하여 마셔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독사고 사례

- 3세 남자 어린이가 가정에서 락스를 마시고 중독 증상으로 복통 및 구토 발생하여 병원 치료
- 1세 여자 어린이가 가정에서 컵에 따라 놓은 액체세제를 마시고 화학물질 중독 증상으로 병원치료
- 0세(7개월) 여자 어린이가 가정에서 방향제 스틱을 입에 물고 빨아서 화학물질 중독 증상으로 병원치료



생활화학제품 중독사고 예방요령

- 어린이가 제품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근처에 없을때에만 사용합니다.
- 가정용 세제 삼킴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 어린이에게 화장실과 세탁실은 놀이 공간이 아니라고 교육합니다.
- 낮은 수납장에 제품을 보관할 경우 수납장을 잠그거나 제품에 어린이 보호 포장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날개의 제품을 용기 외부에 두지 않습니다.
- 제품 용기를 바꾸지 않고 원래 용기 그대로 사용하며 다 쓴 제품 용기를 다른 물건 특히 음식을 담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용 후에는 높은 선반과 같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어린이가 볼 수 없는 곳에 제품을 보관합니다.

사고예방 대처법

- 생활화학제품을 삼키거나 빨아 먹은 경우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습니다.
 - 억지로 구토하게 하는 경우 토사물 흡입, 식도 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입과 얼굴을 철저히 헹구고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 병원 방문 시 어린이가 삼킨 제품의 성분, 삼킨 양 등을 확인하여 의사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제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 눈을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로 씻어 낸 후 병원치료를 받습니다.
- 피부에 접촉제 등이 묻었을 경우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사고발생시 긴급연락처

기 관		병 원
• 군산소방서	119 063)450-0205	• 군산의료원 응급실 063)472-5130 (야간) 063)472-5129
• 군산경찰서	112 063)441-0339	• 동군산병원 응급실 063)440-0300 (야간) 063)440-0515
• 군 산 시 청	063)454-3880 063)454-3403	• 전 북 대 학 병 원 063)250-2222 (야간) 063)450-1131
• 전북지방환경청 (야간)	063)839-5200 063)839-5211 063)238-8800	
• 고용노동부군산지청	063)452-0009	

사업장, 화학물질 운반차량 주변에서 연기 또는 폭발음,
냄새가 나거나 눈, 피부가 따가울 때에는

"침착하게 주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합니다."

